

##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커피 섭취 변화 : 2001, 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이 창 현<sup>1)</sup> · 오 석 태<sup>¶</sup>

우송대학교 Culinary MBA 대학원<sup>1)</sup> ·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sup>¶</sup>

### Changes of Coffee Intake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over 50 and the Elderly in Korea : Analysis of data from the 2001/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Chang-Hyun Lee<sup>1)</sup> · Suk-Tae Oh<sup>¶</sup>

Graduate school of Culinary MBA, Woosong University<sup>1)</sup>,  
Dept. of Culinary Arts, Woosong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changes in coffee intake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over 50 and the elderly living in Korea. The data of 2,316 and 3,170 people were extracted respectively from the 2001 and 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The data were analyzed by gender, age, region area,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They were also analyzed according to gender and age by average daily intake of coffee, coffee type, place, cups of coffee a day and amount of coffee intake per serving.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IBM PASW Statistics (SPSS) 21.0 which is capable of complex sample design by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offee consumption of the elderly was influenced by their economic activity. In 2011, elderly men ingested averagely more coffee than elderly women, and they also consumed brewed coffee mostly at workplace. Moreover, age groups of over 75 tended to consume a lot of brewed coffee. In this respect, the coffee industry should be aware of the elderly as a new consumption group. Also, this study provides a variety of coffee shops with basic data for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activities.

**Key word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ffee intake, elderly, KNHANES

#### I. 서 론

20세기까지만 해도 인구 고령화와 노인 문제는 일부 선진국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출산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최

첨단 의료기술 발달, 생활환경 개선 등에 따라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진국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Ahn HI 2009; IAGG 2013).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 오석태, 042-630-6295, stoh@wsu.ac.kr,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3; Kim SH 2012). 최신 의료기술 발달에 의한 사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 및 여성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반대로 합계 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감소(Hwang JY · Chung SE 2009)한 것이 인구 고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 고령화 현상에 의한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40년에 고령화 비율이 32.3%가 되어 일본(34.5%)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3). 자녀들에 의해 부양되어오면서 수동적인 소비와 의존적인 생활을 한 이전 노인세대와는 다르게 현대 노인세대는 국민연금 확대, 저축 증대, 부동산 수입 등으로 확보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소비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Park YG · Kim PJ 2002). 이처럼 소비력이 증대된 노인 계층의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맞물려 산업에서는 새로운 소비층으로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소비자를 겨냥한 국내 고령화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Ahn HI · Kim HS 2009). 이미 전체 시장에서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4%이며, 2010년에는 28.7%로 확대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노인소비자를 위한 고령화산업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 2006).

이러한 결과, 고령화산업에서 건강은 물론이고 활기찬 생활 유지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는 특성을 가진 노인소비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외식산업에서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외식문화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SH *et al.* 2011; 삼성경제연구원 2012). 이 중 외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커피의 소비는 습관적 성향과 기호식품으로서 소

비재라는 특성까지 있기 때문에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노인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커피 취향은 인스턴트커피(1회용 커피믹스 포함)의 소비에서 벗어나 1999년에 스타벅스(Starbucks)의 국내 진출을 계기로 입점 수가 늘어난 커피전문점에 의해 원두커피 소비로 변화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연평균 21.6%, 매출액 규모 10배인 2.8조원 수준으로 커피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커피 산업에 큰 변화가 진행되었다(관세청 20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노인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영양에 취약한 집단으로서 건강상태와 생활의 질을 결정하기 위해 식습관 및 식이 패턴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Kim OS · Ryu HS 2009). 이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대부분은 식품섭취(Baek *et al.* 2000; Kim EM · Choi MK 2013), 영양소 섭취(Lim YS *et al.* 2000; Lee KH *et al.* 2007), 식습관 조사(Chung MS · Kang KJ 1996; Choi HJ · Kim SH 2003) 등 건강과 식생활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커피 소비가 하루 평균 1.5잔 정도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Kim TH *et al.* 2013)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섭취 행태에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커피 섭취 실태(Choi MK · Jun YS 1997; Shin SY · Chung LN 2007; Yeon JY *et al.* 2009; Choi YS *et al.* 2009; Lim YH · Kim SH 2012; Lee JH 2013),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른 커피 소비 행동(Kim YJ *et al.* 2011; Kim TH *et al.* 2013), 성인의 커피 섭취 상태(Choi MK · Lee YS 2007; Kim EK *et al.* 2012; Shin JW 2012) 등 특정 지역 조사와 대학생 및 노인의 연령층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노인의 커피 섭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며 선행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커피 섭취 추이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커피 관련업체의 노인소비자 행동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제 2기(2001년)와 제 5기 2차년도(2011년)의 건강 조사와 영양조사에 해당하는 식생활조사, 식품섭취빈도조사, 식품섭취조사(개인별 24시간 회상법) 자료를 이용하였다(보건복지부 2011). 자료의 조사 대상자는 10년 추이를 비교하는 만큼 UN(2013) 기준의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50~64세 성인까지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2001년 50~64세 성인 자료와 2011년 65~74세 노인 자료를 비교하여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게다가 2011년 50~64세 성인 자료는 15년 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진입하는 2026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되므로 서로간의 연령별, 연도별 자료를 비교·통합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과 2011년 원시자료로부터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 각각 2,316명, 3,170명인 총 5,486명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보건복지부 2011).

### 2. 분석 내용

#### 1) 커피 섭취 횟수 비교

커피 섭취 횟수의 분석을 위해 영양조사의 식생활조사에서 ‘커피 섭취 횟수’ 변수를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집단과 ‘주 1~6회’, ‘월 1~3회’, ‘거의 안 마신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2) 커피 섭취 현황 비교

연도별 커피 섭취 현황은 크게 ‘유형별 커피 섭취량’, ‘1일 섭취하는 커피 잔 수’, ‘1회 섭취하는 커피의 양’, ‘커피 섭취 장소’로 나누고, ‘유형별 커피 섭취량’의 커피 유형은 다시 인스턴트커피

(Instant coffee), 원두커피(Brewed coffee), 믹스커피(Mixed coffee), 자판기커피(Vending machine coffee), 캔 커피를 포함한 커피음료(Coffee drink)로, ‘커피 섭취 장소’는 Shin JW(2012)의 연구를 토대로 ‘식사장소’ 변수를 재설정하여 ‘가정식(Home: 가정, 이웃집/친척집)’, ‘외식(Dining out: 음식점소(한식/중식/양식),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노점/제과점/편의점)’, ‘직장(Workplace: 직장)’, ‘기타장소(Others: 학교, 노인정/노인대학/복지관, 사찰/교회, 기타)’로 분류하였다.

### 3. 분석 방법

#### 1) 연구 내용 및 방법

커피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를 성별, 연령, 지역, 결혼 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연령층은 보건복지부 노인 연령 기준으로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연령층으로 분류하였고, 결혼 상태는 기혼노인(기혼, 별거)과 미혼노인(미혼, 이혼, 사별)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Lee *et al.*(2011)의 연구를 활용하여 1.2배 미만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1.2~2.5배인 경우에는 ‘중산층’, 2.5배 이상인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나누었다. 커피 섭취 현황 분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 2) 통계 처리

통계분석은 복합표본(complex samples)설계 자료 분석이 가능한 분석패키지인 IBM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층화(strata), 집락(cluster), 가중치(weight) 등 복합표본설계 요소를 조사에 참여한 표본이 목표모집단인 우리나라의 노인 계층을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들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여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 및 연도별 커피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법에 의한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과 ‘하루 1회 이상’ 커피 섭취빈도와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교차비(ORs: 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였다. 연속형 변수에 대한 값은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 Mean),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를 구했고, 유의성 검증은 일반선형모형(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t-검정(t-test)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분포의 차이는  $p <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Ⅲ. 결과 및 고찰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노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2001: 42.6%, 2011: 46.4%)보다 여성(2001: 57.4%, 2011: 53.6%)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연령별로 보면 50~64세(2001: 62.2%, 2011: 62.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65~74세(2001: 25.9%, 2011: 23.1%), 75세 이상(2001: 11.9%, 2011: 14.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모두 유사한 연령 비율 분포로 나타났다. 지역은 대도시(2001: 62.4%, 2011: 64.8%), 읍·면지역(2001: 24.7%, 2011: 19.3%), 중소도시(2001: 12.8%, 2011: 15.9%)에 거주하는 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sup>1)</sup>

Variables		2001(n=2,316)		2011(n=3,170)		$p^4)$
		n <sup>2)</sup>	% <sup>3)</sup>	n	%	
Gender	Male	997	42.6	1,342	46.4	.000***
	Female	1,319	57.4	1,828	53.6	
Age	50~64	1,400	62.2	1,680	62.3	.000***
	65~74	626	25.9	944	23.1	
	≥ 75	290	11.9	546	14.6	
Region Area	Metropolitan	1,325	62.4	1,908	64.8	.000***
	Middle & Small city	323	12.8	585	15.9	
	Rural area	668	24.7	677	19.3	
Marital Status	Married	1,707	74.7	2,506	80.5	.000***
	Unmarried	608	25.3	621	19.5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1,697	71.9	1,851	61.7	.000***
	High school	393	17.5	698	24.8	
	≥ College	225	10.6	398	13.6	
Household Income	Low	752	32.1	1,022	30.1	.000***
	Middle	814	36.3	928	30.1	
	High	692	31.6	1,184	39.8	
Economic Activity	Employed	1,048	43.7	1,515	56.6	.000***
	Unemployed	1,268	56.3	1,432	43.4	
Subjective Health Status	Excellent	57	2.5	129	4.5	.000***
	Very good	582	25.9	735	25.7	
	Good	758	33.3	1,319	45.1	
	Fair	919	38.2	766	24.7	

<sup>1)</sup> Weights for nutrition surveys were applied for all estimates.

<sup>2)</sup> Unweighted number

<sup>3)</sup> Weighted percentage(%)

<sup>4)</sup> \*\*\* $p < 0.001$  by chi-square test

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동안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2001: 74.7%, 2011: 80.5%)이 미혼(2001: 25.3%, 2011: 19.5%)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2001: 71.9%, 2011: 61.7%)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를 졸업 학력자(2001: 17.5%, 2011: 24.8%)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2001: 10.6%, 2011: 13.6%)의 비율이 2011년에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비율을 보면 저소득층(2001: 32.1%, 2011: 30.1%), 중산층(2001: 36.3%, 2011: 30.1%) 비율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2001: 31.6%, 2011: 39.8%) 비율은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은 10년 사이 종사자(2001: 43.7%, 2011: 56.6%)가 비종사자(2001: 56.3%, 2011: 43.4%)의 비율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2001년에는 건강하지 못함(38.2%)으로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높았지만, 10년 사이 건강한편(45.1%)이라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10년 전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는 교육 및 소득수준의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변화가 노인 계층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 2. 커피 섭취 횟수 분석

우리나라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커피 섭취 횟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합적으로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노인(2001: 43.0%, 2011: 66.7%)은 ‘거의 안 마신다’로 응답한 노인(2001: 30.8%, 2011: 10.5%)보다 2001년은 12.2%, 2011년은 56.2%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의 증가율은 23.7%로 나타났으며, ‘주 1~6회’, ‘월 1~3회’,

‘거의 안 마신다’로 응답한 노인의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다( $p<0.001$ ).

성별로 보면 10년 사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남성(2001: 50.0%, 2011: 72.1%)은 22.1%, 여성(2001: 37.7%, 2011: 62.2%)은 2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1$ ). 10년 사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은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 실태를 연구한 Lim YH·Kim SH(2012)은 남학생이 커피를 섭취하는 빈도는 ‘주 1~2회’로 32.6%를 차지했고, 여학생은 ‘하루 1회’ 커피를 섭취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그 비율은 32.3%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커피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에 따라서 커피 섭취 빈도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10년 동안 50~64세 연령층에서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1년(49.1%), 2011년(71.0%) 모두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1년 50~64세 연령층의 커피 섭취 증가율에 비해 65~74세(25.5%)와 75세 이상(27.2%) 연령층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2001년에 50~64세와 65~74세 연령층의 노인이 섭취한 비율이 10년 후 연령층에 속해 그 증가율에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지역별로 10년 동안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증가율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집단(2001: 49.2%, 2011: 69.1%)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2001: 39.2%, 2011: 61.3%)이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집단(2001: 29.6%, 2011: 62.9%)은 3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1$ ). 2011년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집단과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Table 2〉 Coffee intakes frequency by total, gender, age, region area, marital status<sup>1)</sup>

Variables	N (%±SE) <sup>2)</sup>		% Difference	p <sup>3)</sup>		
	2001	2011				
Total	≥1/day	951 (43.0±1.4)	1,910 (66.7±1.1)	23.7	.000***	
	1~6/week	379 (16.4±1.0)	455 (15.2±0.9)	-1.2		
	1~3/month	231 (9.8±0.7)	237 (7.7±0.6)	-2.1		
	Rarely	718 (30.8±1.0)	358 (10.5±0.6)	-20.3		
Gender	Male	≥1/day	491 (50.0±1.7)	899 (72.1±1.4)	22.1	.000***
		1~6/week	170 (17.5±1.3)	170 (14.3±1.3)	-3.2	
		1~3/month	85 (8.8±0.9)	77 (6.2±0.9)	-2.6	
	Rarely	236 (23.7±1.3)	108 (7.5±0.8)	-16.2		
Female	≥1/day	460 (37.7±1.8)	1,011 (62.0±1.5)	24.3	.000***	
	1~6/week	209 (15.6±1.8)	285 (16.0±1.1)	0.4		
	1~3/month	145 (10.5±0.9)	160 (8.9±0.8)	-1.6		
	Rarely	482 (36.2±1.5)	250 (13.1±1.0)	-23.1		
Age	50~64	≥1/day	666 (49.1±1.6)	1,147 (71.0±1.3)	21.9	.000***
		1~6/week	243 (17.6±1.3)	237 (14.3±1.1)	-3.3	
		1~3/month	122 (8.7±0.9)	125 (7.3±0.8)	-1.4	
		Rarely	345 (24.6±1.2)	129 (7.3±0.7)	-17.3	
65~74	≥1/day	218 (36.4±2.3)	525 (61.9±2.0)	25.5	.000***	
	1~6/week	97 (14.8±1.7)	140 (15.2±1.5)	0.4		
	1~3/month	69 (10.5±1.4)	75 (7.4±0.9)	-3.1		
	Rarely	234 (38.3±2.0)	144 (15.5±1.6)	-22.8		
≥75	≥1/day	67 (25.2±3.1)	238 (52.4±3.2)	27.2	.000***	
	1~6/week	39 (13.4±2.2)	78 (19.7±2.4)	6.3		
	1~3/month	39 (13.7±2.5)	37 (10.1±2.0)	-3.6		
	Rarely	139 (47.7±3.5)	85 (17.9±2.2)	-29.8		
Region Area	Metropolitan	≥1/day	616 (49.2±1.7)	1,212 (69.1±1.4)	19.9	.000***
		1~6/week	212 (15.7±1.3)	239 (13.3±1.1)	-2.4	
		1~3/month	101 (7.8±0.9)	144 (7.8±0.8)	-	
		Rarely	362 (27.3±1.3)	203 (9.9±0.8)	-17.4	
Middle & Small city	≥1/day	132 (39.5±4.2)	321 (61.3±2.4)	21.8	.000***	
	1~6/week	54 (17.5±2.7)	105 (19.1±2.0)	1.6		
	1~3/month	34 (11.1±1.4)	47 (7.4±1.1)	-3.7		
	Rarely	103 (31.9±3.1)	79 (12.2±1.8)	-19.7		
Rural area	≥1/day	203 (29.6±2.6)	377 (62.9±2.5)	33.3	.000***	
	1~6/week	113 (17.7±1.8)	111 (18.5±2.1)	0.8		
	1~3/month	95 (13.8±1.4)	46 (7.6±1.5)	-6.2		
	Rarely	253 (38.9±1.8)	76 (11.0±1.6)	-27.9		
Marital Status	Married	≥1/day	768 (47.0±1.6)	1,581 (68.6±1.1)	21.6	.000***
		1~6/week	285 (16.6±1.2)	356 (14.7±0.9)	-1.9	
		1~3/month	158 (9.3±0.8)	186 (7.4±0.7)	-1.9	
		Rarely	469 (27.1±1.2)	261 (9.3±0.7)	-17.8	
Unmarried	≥1/day	182 (31.0±2.2)	307 (58.5±2.8)	27.5	.000***	
	1~6/week	94 (15.9±1.6)	92 (17.1±2.0)	1.2		
	1~3/month	72 (11.0±1.3)	50 (9.5±1.5)	-1.5		
	Rarely	249 (42.0±2.2)	89 (14.8±1.8)	-27.2		

<sup>1)</sup> Weights for nutrition surveys were applied for all estimates.

<sup>2)</sup> Unweighted Number(Weighted % ± Standard Error)

<sup>3)</sup> \*\*\*p<0.001 by chi-square test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은 기혼(2001: 47.0%, 2011: 68.6%), 미혼(2001: 31.0%, 2011: 58.5%)이 각각 21.6%, 2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의 비율은 기혼이 높고, 10년 동안 섭취 증가는 미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교육수준별로 보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이 전문대 이상 졸업 학력자(2001: 56.2%, 2011: 71.1%),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2001: 53.5%, 2011: 74.9%),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2001: 38.6%, 2011: 61.4%)로 2001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지만, 2011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전문대 이상 졸업 학력자보다 비율이 3.8% 높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증가율(21.4%)도 더 높게 조사되었다( $p < 0.001$ ). 이는 성인의 하루 및 1회 당 커피 섭취량이 교육수준의 상승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커피 관련 연구(Shin JW 2012)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식 관련 연구와도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로 분석되었다(Kim TH · Seo E 2005). 반면, Sohn KH *et al.* (2000)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커피 섭취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의 비율은 고소득층(2001: 50.4%, 2011: 71.8%), 중산층(2001: 41.3%, 2011: 66.0%), 저소득층(2001: 36.2%, 2011: 60.1%)순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0.001$ ). 이러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10년 동안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23.9%), 중산층(24.7%)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2011년 분석 결과는 소득수준에 의한 커피의 소비는 덜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Kim SH(2012)은 가계소비지출 항목에서 커피 상품이 필수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커피 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경제활동 유무별로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의 비율은 경제활동 종사자(2001: 51.5%, 2011: 72.8%), 비종사자(2001: 36.6%, 2011: 57.3%) 모두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이 약 20% 정도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커피 섭취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01$ ). Farmer MM · Ferraro KF(1997)의 연구처럼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지표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의료인에 의한 객관적 관찰이 아닌 노인 스스로의 자기 인지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시각을 반영하는(Horowitz LG 1985) 주관적 건강상태를 변수로 활용하였다(Hulka BS · Wheat JR 1985; Wolinsky FD · Arnold CL 1988; Ko MS · Seo IK 2011).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은 ‘매우 건강한 편이다(2001: 54.4%, 2011: 71.8%)’라고 응답한 노인과 ‘건강한 편이다(2001: 55.9%, 2011: 72.6%)’라고 응답한 노인이 10년 지난 최근에 각각 약 70% 이상 비율로 높게 나타났고, ‘보통(24.0%)’과 ‘건강하지 못하다(22.4%)’라고 응답한 노인도 커피 섭취에 있어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p < 0.001$ ). 본인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노인일수록 커피 섭취 빈도도 높게 나타났지만, 10년 동안 ‘하루 1회 이상’ 섭취 빈도의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요인은 커피 섭취 행동에 있어서 다소 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의 커피 섭취 행태를 종합해보면 2001년에는 교육 및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커피를 섭취하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2011년에는 이러한 요인이 노인 계층의 커피 섭취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계층이 증가하면서 본인 스스로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커피 섭취 비율이 증가하고 있

**<Table 3> Coffee intakes frequency by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subjective health status**

Variables		N (%±SE)		% Difference	p	
		2001	2011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 1/day	625 (38.6±1.6)	1,042 (61.4±1.5)	22.8	.000***
		1~6/week	285 (16.6±1.2)	288 (16.5±1.2)	-0.1	
		1~3/month	190 (10.9±0.8)	155 (9.2±0.9)	-1.7	
		Rarely	577 (33.9±1.2)	249 (12.8±1.0)	-21.1	
	High school	≥ 1/day	203 (53.5±2.7)	484 (74.9±2.0)	21.4	.000***
		1~6/week	53 (14.1±1.7)	97 (14.0±1.6)	-0.1	
		1~3/month	30 (8.1±1.6)	49 (5.5±1.0)	-2.6	
		Rarely	96 (24.3±2.1)	50 (5.5±0.9)	-18.8	
	≥ College	≥ 1/day	123 (56.2±3.5)	281 (71.1±2.9)	14.9	.000***
		1~6/week	41 (18.6±3.1)	54 (14.6±2.4)	-4.0	
		1~3/month	10 (4.6±1.4)	23 (6.2±1.5)	1.6	
		Rarely	45 (20.6±2.8)	31 (8.0±1.6)	-12.6	
Household Income	Low	≥ 1/day	260 (36.2±2.5)	539 (60.1±2.0)	23.9	.000***
		1~6/week	133 (17.1±1.8)	158 (17.0±1.4)	-0.1	
		1~3/month	80 (9.7±1.3)	71 (7.6±1.3)	-2.1	
		Rarely	271 (37.0±2.2)	147 (15.3±1.7)	-21.7	
	Middle	≥ 1/day	329 (41.3±2.3)	566 (66.0±2.0)	24.7	.000***
		1~6/week	135 (16.8±1.6)	125 (14.9±1.6)	-1.9	
		1~3/month	86 (11.4±1.5)	74 (8.9±1.3)	-2.5	
		Rarely	253 (30.6±1.6)	110 (10.2±1.2)	-20.4	
	High	≥ 1/day	330 (50.4±2.2)	787 (71.8±1.7)	21.4	.000***
		1~6/week	107 (16.1±1.5)	166 (13.9±1.2)	-2.2	
		1~3/month	59 (7.9±1.1)	90 (7.0±0.9)	-0.9	
		Rarely	177 (25.5±1.9)	96 (7.3±0.8)	-18.2	
Economic Activity	Employed	≥ 1/day	521 (51.5±1.9)	1,045 (72.8±1.8)	21.3	.000***
		1~6/week	166 (16.2±1.3)	192 (13.2±1.1)	-3.0	
		1~3/month	96 (8.9±1.0)	107 (6.7±0.8)	-2.2	
		Rarely	253 (23.4±1.4)	121 (7.3±0.8)	-16.1	
	Unemployed	≥ 1/day	430 (36.6±1.9)	762 (57.3±1.7)	20.7	.000***
		1~6/week	213 (16.6±1.3)	247 (18.9±1.3)	2.3	
		1~3/month	134 (10.4±1.0)	120 (9.5±1.1)	-0.9	
		Rarely	465 (36.7±1.5)	209 (14.4±1.2)	-22.3	
Subjective Health Status	Excellent	≥ 1/day	26 (54.4±7.6)	88 (71.8±5.2)	17.4	.085
		1~6/week	10 (16.9±4.7)	20 (15.5±4.4)	1.4	
		1~3/month	9 (12.5±4.0)	7 (5.6±2.5)	-6.9	
		Rarely	11 (16.2±4.7)	8 (7.1±3.1)	-9.1	
	Very good	≥ 1/day	315 (55.9±2.3)	487 (72.6±1.7)	16.7	.000***
		1~6/week	77 (13.2±1.7)	106 (14.8±1.6)	1.6	
		1~3/month	55 (8.9±1.3)	54 (7.1±1.1)	-1.8	
		Rarely	130 (22.1±2.0)	54 (5.5±0.9)	-16.6	
	Good	≥ 1/day	315 (43.9±2.3)	853 (67.9±1.5)	24.0	.000***
		1~6/week	142 (18.4±1.5)	183 (14.6±1.2)	-3.8	
		1~3/month	68 (9.5±1.4)	90 (7.2±1.0)	-2.3	
		Rarely	215 (28.1±1.7)	150 (10.3±0.9)	-17.8	
Fair	≥ 1/day	295 (32.6±2.0)	379 (55.0±2.6)	22.4	.000***	
	1~6/week	150 (16.9±1.5)	130 (18.4±2.0)	1.5		
	1~3/month	98 (10.4±1.0)	76 (10.4±1.6)	-		
	Rarely	362 (40.2±1.8)	119 (16.3±1.7)	-23.9		



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고학력과 고소득일수록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식 관련 연구(Kwon YS 2009; Cho JH 2012) 결과와 다소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 3. 연도별 커피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1년과 2011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커피 섭취 횟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집단의 비율이 모든 특성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연도별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001년과 2011년 모두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집단에 경제활동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노인이 종사하는 노인보다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할 가능성이 2001년에는 43.2%(OR: 0.568,

95% CI: 0.446-0.728), 2011년에는 41.9%(OR: 0.581, 95% CI: 0.473-0.71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행태는 연령과 계층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뿐만 아니라 교육 및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Sohn KH *et al.* 2000),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 집단에서는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커피 섭취 현황 분석

노인의 커피 유형별, 장소별 섭취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커피를 섭취했다고 응답한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하루에 평균적으로 섭취한 커피의 총량은 2001년 223.65mL에서 2011년 268.21mL로 증가하였다. 커피 종류별 섭취량을 비교해보면 믹스커피를 포함하지 않는 인스턴트커피(2001: 225.87mL, 2011: 243.85mL)와 원두커피(2001: 262.69mL,

<Table 4>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coffee frequency( $\geq 1/\text{day}$ )

Characteristics	2001	2011
Gender(reference = Male)		
Female	0.859 (0.696-1.061) <sup>1)</sup>	0.850 (0.687-1.051)
Age(ref. = 50~64)		
65~74	0.839 (0.653-1.077)	0.885 (0.685-1.145)
$\geq 75$	0.661 (0.449-0.973)	0.606 (0.435-0.843)
Region Area(ref. = Metropolitan)		
Middle & Small city	0.688 (0.461-1.025)	0.703 (0.559-0.885)
Rural area	0.448 (0.337-0.597)	0.746 (0.563-0.988)
Marital Status(ref. = Married)		
Unmarried	0.788 (0.598-1.038)	0.935 (0.709-1.231)
Educational Level(ref. = $\leq$ Middle school)		
High school	1.179 (0.910-1.529)	0.470 (1.141-1.892)
$\geq$ Collage	0.969 (0.660-1.423)	1.186 (0.837-1.680)
Household Income(ref. = Low)		
Middle	0.906 (0.693-1.185)	1.006 (0.802-1.260)
High	1.083 (0.799-1.468)	1.012 (0.771-1.328)
Economic Activity(ref. = Employed)		
Unemployed	0.568 (0.446-0.728)	0.581 (0.473-0.715)
Subjective Health Status(ref. = Excellent)		
Very good	1.304 (0.681-2.497)	1.010 (0.612-1.668)
Good	0.867 (0.462-1.628)	0.882 (0.536-1.451)
Fair	0.713 (0.355-1.431)	0.594 (0.353-0.998)

<sup>1)</sup> Odds ratio(95% Confidence Interval)

〈Table 5〉 Trend analysis of coffee intake amount by total and gender(ml/day)

Intake(ml/day)	Gender						p <sup>6)</sup>								
	Total(n=5,486)			Male(n=2,339)			Female(n=3,147)			p <sup>6)</sup>					
	2001(n=2,316)	2011(n=3,170)		2001(n=997)	2011(n=1,342)		2001(n=1,319)	2011(n=1,828)		2001(n=1,319)	2011(n=1,828)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Total coffee intake	223.65	5.86	268.21	7.07	<0.001	233.97	8.05	288.45	11.22	<0.001	212.37	7.04	248.07	7.32	<0.001
Instant coffee	225.87	5.94	243.85	9.60	0.112	238.37	8.57	253.68	17.53	0.434	212.72	7.04	235.59	9.23	0.049
Brewed coffee	262.69	26.86	339.84	31.05	0.079	239.57	32.34	334.07	55.69	0.145	285.59	44.13	343.59	39.68	0.333
Mixed coffee	300.00	0.00	221.94	5.10	<0.001	-	-	242.96	7.30	-	300.00	0.00	198.79	5.71	<0.001
Vending machine coffee	145.32	8.23	172.64	13.40	0.087	154.14	10.38	192.82	18.57	0.070	121.02	8.37	121.46	10.89	0.974
Coffee drink <sup>1)</sup>	190.96	0.00	218.65	13.99	0.106	195.54	4.90	210.67	17.94	0.421	186.00	3.90	229.37	34.51	0.216
Amount of coffee intake per each time <sup>2)</sup>	154.71	2.16	142.94	1.74	<0.001	152.04	2.62	131.81	1.67	<0.001	157.63	2.76	154.02	2.88	0.367
Frequency of coffee intake(cup/day)	1.44	0.03	1.92	0.05	<0.001	1.53	0.04	2.21	0.08	<0.001	1.33	0.03	1.64	0.04	<0.001
Coffee intake by place															
Home <sup>3)</sup>	218.20	7.82	228.99	5.24	0.253	234.05	11.94	234.03	7.77	0.999	204.88	7.36	224.88	6.90	0.048
Dining out <sup>4)</sup>	134.11	4.52	123.23	4.50	0.128	130.20	7.32	120.37	4.19	0.245	142.13	7.36	128.74	9.89	0.279
Workplace	196.56	9.65	247.29	11.18	<0.001	194.56	8.21	256.32	15.80	<0.001	200.13	23.69	230.72	12.32	0.252
Others <sup>5)</sup>	179.27	10.22	199.61	10.36	0.226	185.80	14.29	215.15	15.31	0.163	166.47	25.99	184.24	13.97	0.546

1) Including Can Coffee  
 2) Coffee amount by 1 portion size.  
 3) Home included home, neighborhood and home of relative.  
 4) Dining out included restaurants(Korean/Chinese/Western), snack bars, fast food restaurant, street vendor/convenience store/bakery.  
 5) Others included educational institutions, senior citizens' center/senior citizens' college/community welfare center, and Buddhist temple/church, others.  
 6) by t-test

〈Table 6〉 Trend analysis of coffee intake amount by age(ml/day)

Intake(ml/day)	Age						p <sup>6)</sup>								
	50~64(n=3,080)			65~74(n=1,570)			≥75(n=836)			p <sup>6)</sup>					
	2001(n=1,400)	2011(n=1,680)		2001(n=626)	2011(n=944)		2001(n=290)	2011(n=546)		2001(n=290)	2011(n=546)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Total Coffee intake	224.93	6.68	287.73	9.71	<0.001	221.15	11.73	243.33	9.38	0.141	215.09	17.09	201.00	9.55	0.473
Instant coffee	227.06	6.82	261.33	13.22	0.022	223.99	12.23	212.95	9.87	0.483	217.22	17.55	167.40	11.93	0.020
Brewed coffee	276.98	34.16	347.05	34.90	0.153	212.47	30.38	277.16	47.64	0.253	-	-	287.59	58.85	-
Mixed coffee	300.00	0.00	228.87	6.20	<0.001	-	-	219.90	10.41	-	-	-	194.21	10.58	-
Vending machine coffee	148.59	9.77	176.32	15.01	0.123	127.03	21.81	166.41	19.06	0.169	150.00	0.00	146.18	25.74	0.882
Coffee drink <sup>1)</sup>	192.80	4.48	222.08	19.70	0.143	180.00	0.00	175.00	0.00	<0.001	-	-	243.36	23.33	-
Amount of coffee intake per each time <sup>2)</sup>	153.66	2.42	144.77	2.39	0.009	157.28	3.63	141.44	2.13	<0.001	159.89	4.58	135.00	2.89	<0.001
Frequency of coffee intake(cup/day)	1.45	0.04	2.06	0.07	<0.001	1.40	0.06	1.73	0.06	<0.001	1.33	0.09	1.48	0.05	0.173
Coffee intake by place															
Home <sup>3)</sup>	217.54	9.08	235.59	7.62	0.129	220.09	13.39	226.76	8.94	0.678	218.35	19.96	203.31	10.24	0.504
Dining out <sup>4)</sup>	134.56	6.00	124.20	5.68	0.208	127.40	8.92	123.95	6.14	0.750	170.83	26.26	106.33	2.94	0.015
Workplace	196.29	10.19	251.58	12.33	<0.001	215.13	35.32	220.32	15.35	0.893	123.93	17.65	156.72	20.37	0.226
Others <sup>5)</sup>	182.34	16.88	218.56	15.06	0.120	160.32	9.97	179.93	13.92	0.254	194.74	23.25	152.09	17.01	0.138

1) Including Can Coffee  
 2) Coffee amount by 1 portion size.  
 3) Home included home, neighborhood and home of relative.  
 4) Dining out included restaurants(Korean/Chinese/Western), snack bars, fast food restaurant, street vendor/convenience store/bakery.  
 5) Others included educational institutions, senior citizens' center/senior citizens' college/community welfare center, the Buddhist temple/church, others.  
 6) by t-test

2011: 339.84mL), 자판기커피(2001: 145.32mL, 2011: 172.64mL), 커피음료(2001: 190.96mL, 2011: 218.65mL) 모두 섭취량이 증가했지만, 믹스커피의 섭취량은 감소하였다(2001: 300.00mL, 2011: 221.94mL). 특히, 원두커피의 평균 섭취량은 2011년에 339.84mL(11.5oz)로 이는 일반 종이컵의 용량인 190(±5)mL(6.5oz) 보다 약 1.8배가 많고,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 용기의 평균 용량인 300mL(10oz)보다도 많은 양이다.

노인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 잔 수는 2001년도 1.44잔에서 2011년 1.92잔으로 증가하였지만, 1회 섭취량은 2001년 154.71mL에서 2011년 142.94mL로 감소하였다. 1회 섭취하는 커피의 양은 감소했지만 하루에 섭취하는 잔 수가 증가한 것을 미뤄볼 때, 음용하는 양은 줄었지만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소에 따른 커피 섭취량을 보면 2001년, 2011년 모두 가정(2001: 218.80mL, 2011: 228.99mL), 직장(2001: 196.56mL, 2011: 247.29mL), 기타(2001: 179.27mL, 2011: 199.61mL), 외식(2001: 134.11mL, 2011: 123.23mL) 장소 순으로 섭취량이 많았으며, 2001년에 비해 2011년에는 가정, 직장, 기타 장소에서 커피 섭취량이 증가하였지만, 외식 장소에서는 커피 섭취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분석에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사장소' 변수가 노인의 이용이 적은 패스트푸드와 분식점, 편의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로 보면 2001년 보다 2011년에 남성(2001: 233.97mL, 2011: 288.45mL), 여성(2001: 212.37mL, 2011: 248.07mL) 모두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커피 섭취량으로 커피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남성은 원두커피(334.07mL), 인스턴트커피(253.68mL), 믹스커피(242.96mL), 커피음료(210.67mL), 자판기커피(192.82mL) 순이며, 여성은 원두커피(343.59mL), 인스턴트커피(235.59mL), 커피음료(229.37mL), 믹스커피(198.79mL), 자판기커피(121.46mL)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미뤄보아 남성보다 여성이 원두커피를 평균적으로

많이 마시며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장소별 커피 섭취량을 보면 남녀 모두 2001년에는 가정에서의 섭취량 다음으로 직장에서의 섭취량이 많았지만, 2011년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에서의 커피 섭취량이 가정에서의 섭취량보다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에서 커피를 자주 섭취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연령층별로 전체 커피 섭취량과 비교해보면 50~64세(224.93mL), 65~74세(221.15mL), 75세 이상(215.09mL) 연령층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커피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많이 선호하고 섭취량이 많은 원두커피(Brewed coffee)의 경우, 2011년을 기준으로 평균 섭취량은 50~64세(347.05mL), 75세 이상(287.59mL), 65~74세(277.16mL) 연령층 순으로 조사되어 연령이 낮을수록 섭취량이 많았던 다른 종류의 커피와는 달리, 연령이 높은 75세 이상 노인 계층에서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캔 커피를 포함한 커피음료도 원두커피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섭취 실태를 조사한 Shin JW(2012)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커피의 유형으로 쉽게 이용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이 특징인 인스턴트커피를 다소비 품목으로 도출하였고, 커피전문점 및 커피를 판매하는 외식업체 수의 증가와 다양한 표적 시장을 공략하고 개척한 RTD(Ready To Drink) 커피의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는 커피 유형으로 원두커피와 캔 커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한 예측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와 2013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커피 소비 트렌드에 관한 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조사도구를 활용한 본 연구의 결과와 종합해보면 2010년 이후, 소비자 취향이 고급화되면서 원두커피

및 캔 커피를 포함한 커피음료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전 달고 맛있는 커피를 선호하여 커피믹스의 소비가 집중되었고, 2000년 이후 커피전문점의 전국적으로 입점으로 인해 원두커피의 음용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입맛과 니즈(needs)가 다양화 된 것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10년 동안의 커피 섭취 행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커피 산업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노인 계층을 주목함과 동시에 커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인소비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국 규모의 객관적인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2기(2001년)와 제 5기 2차년도(2011년)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0세 이상 성인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교육 및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노인 계층의 비율이 10년 동안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p < 0.001$ ). 연구에 활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 자료이므로 다양한 특성에 의한 고령화의 진행 추이 현황을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커피의 섭취 빈도는 ‘하루 1회 이상’, ‘주 1~6회’, ‘월 1~3회’, ‘거의 안 마신다’로 구분하였으며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이 ‘거의 안 마신다’에 응답한 노인보다 2001년 12.2%, 2011년 56.2%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노인의 증가율은 23.7%로 나타났고,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

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지만 10년 변화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1년에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1년에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 노인이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비율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율도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1년에 소득수준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이는 기호음료인 필수재의 성격을 가진 커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경제활동 유무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섭취하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노인의 하루 평균 섭취한 커피의 총량(2001: 223.65mL, 2011: 268.21mL)은 증가하였고, 커피 종류별로 가장 많은 섭취량을 보인 것은 원두커피(2001: 262.69mL, 2011 339.84mL)로 이는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 용기의 평균 용량인 300mL(10oz)보다도 많은 섭취량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 잔 수(2001: 1.44cup, 2011: 1.92cup)는 증가하였지만, 1회 섭취량(2011: 154.71mL, 2011: 142.94mL)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 잔 단위로 보았을 경우에 커피의 섭취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패스트푸드와 스낵 바, 편의점 등 노인의 방문이 적은 외식 장소에서 섭취량이 적었고, 직장에서의 커피 섭취량이 많았다.

넷째, 여성보다 남성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이 많았으며 남성이 선호하는 커피 종류는 원두커피, 인스턴트커피, 믹스커피, 커피음료, 자판기커피 순이며, 여성은 원두커피, 인스턴트커피, 커피음료, 믹스커피, 자판기커피 순으로 섭취량이 많았다. 2001년에 남녀 대부분 가정에서 커피를 섭취하였지만 2011년에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 계층의 증가로 인해 직장에서도 커피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2001년에 연령이 낮을수록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이 많았지만 2011년에는 원두커피와 캔 커피를 포함한 커피음료의 하루 평균 섭취량에서 50~64세(347.05mL) 연령층 다음으로 75세 이상(287.56mL) 연령층의 섭취량이 많아 높은 연령의 노인 집단에서도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식 소비 연구와는 달리 2011년에 들어 교육 및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커피를 섭취하는데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계층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판단하는 노인 집단의 커피 섭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 및 커피와 관련된 변수의 활용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식사장소 변수에 커피전문점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노인의 방문이 적은 패스트푸드 및 분식점, 편의점을 외식 장소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 계층의 특성상 경제활동 유무가 커피를 섭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세부 직업군별 커피 섭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당해 시점의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는 이전, 이후 연령층에 대한 포괄적 비교·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커피 섭취량의 증가는 음료와 기타 식품군의 섭취량이 함께 증가하는 반면,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섭취 기회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MK · Jun YS 1997). 커피는 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체의 필수 요소인 물의 대용으로도 마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커피와 물, 우유의 권장 섭취량에 따른 비교 연구와 물과 우유의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영양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커피 섭취 행태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를 통해 변화된 우리나라 노인의 커피 섭취 행태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소비자는 자녀들에 의존하여 수동적인 소비를 해왔다면 최근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능동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주체로서 변화하였다. 게다가 외식과 맞물려 증가하는 커피 소비의 경우 습관적 성향과 소비재 기호식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해지는 노인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커피 관련업체에서는 노인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원두커피와 커피음료를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인과는 달리 노화로 인해 신체 능력이 약화되어 시력 감소, 인지 부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과 연령별 소비 행태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할 수 있고 각각의 그룹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커피 섭취 현황의 10년 추이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커피 관련업체의 소비자 행동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설문에 참여한 50세 이상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2001년은 2,316명, 2011년은 3,170명으로 총 5,486명을 추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지역, 결혼 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성별과 연령별로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 종류에 따른 섭취량, 장소에 따른 섭취량, 하루 커피 섭취 잔 수, 1회 섭취량을 구하였다. 통계분석은 PAWS 21.0으로 빈도분석, t-검정,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한

결과 2001년과 2011년 모두 노인의 커피 섭취는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커피를 평균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였다. 남녀 모두 원두커피를 가장 선호하고 대부분 직장에서 섭취하였으며 75세 이상 높은 연령의 노인 계층에서도 원두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노인을 커피 산업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하며, 원두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는 노인 계층을 겨냥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관세청 (2011). 커피 교역으로 본 우리나라 커피 시장. (보도자료 2011-03), 1-4.
- 대한상공회의소 (2006).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미, 일과의 비교-. (보고서 2006-07), 1-32.
- 삼성경제연구소 (2012). 실버세대를 위한 젊은 비즈니스가 뜬다. (보고서 2012-10), 1-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가공식품 세분화 시장 보고서 -커피편-. (보고서 2013-05), 1-107.
- 보건복지부 (2001). The Secon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I), 200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보건복지부 (2011).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2), 201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Ahn HI (2009). A study of demand on silver products by the elderly consumer's lifestyl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and Cultural Art of Sunchon University 1-2, Sunchon.
- Ahn HI, Kim HS (2009). Demand for silver products versus lifestyle among elderly consumers.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45-61.
- Baek JW *et al.* (2000). Seasonal Food Intake Status of the Long-lived Elderly People in Kyungpook Sung-J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29(4): 691-700.
- Cho JH (2012). A study on eating-out consumption behavior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unmarried people -Using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V data-. Department of Culinary MBA, The Graduated School of Woosong University 90-91, Daejeon.
- Choi HJ, Kim SH (2003). A study on food habit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of the long-lived elderly people in Gyeongnam Namhae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2(7): 1147-1152.
- Choi MK, Jun YS (1997). A study on nutrient intake status according to coffee intake in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East of Dietary Life* 7(3): 375-382.
- Choi MK, Lee YS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coffee consumption, blood pressure, and serum lipids in Korean adult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Food & Nutrition* 20(4): 460-466.
- Choi YS *et al.* (2009).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coffee shop use in the Seoul area. *Korean J of Culinary Research* 15(1): 287-295.
- Chung MS, Kang KJ (1996). With special reference to elderly men in the Tap-gol Park -A survey on the health, food perceptions, and food habits of urban elderly men. *Journal of*

-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11(4): 455-463.
- Farmer MM, Ferraro KF (1997). Distress and perceived health: Mechanisms of health decline.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38(3): 298-311.
- Horowitz LG (1985). The self-care motivation model: Theory & practice in healthy human development. *Journal of school health* 55(2): 57-61.
- Hulka BS, Wheat JR (1985). Patterns of utilization: The patient perspective. *Medical Care* 23(5): 438-460.
- Hwang JY, Chung SE (2009). Sociocultural impacts on declining fertility and progressing population aging: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ea Studies* 13(3): 3-20.
- IAGG(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2013). 20th IAGG World Congres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www.iagg2013.org](http://www.iagg2013.org)
- Kim EK *et al.* (2012). Effect of coffee and green tea consumption on liver enzyme and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6): 2570-2578.
- Kim EM, Choi MK (2013). An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the elderly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ENES V-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42(5): 818-827.
- Kim OS, Ryu HS (2009). The study on blood lipid levels according to the food habits and food intake patterns in Korean elderly. *Korean Journal of Food & Nutrition* 22(3): 421-429.
- Kim SH (2012). The impact of household income on the coffee and tea drinking expenditure: A study focused on employment type and income bracket.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36(8): 231-247.
- Kim TH *et al.* (2013). A study on the coffee consumption behavior by lifestyle. *Journal of Hotel Management* 22(2): 93-112.
- Kim TH, Seo E (2005). Effect of the elderly consumer's financial independency on eating-out decision making process. *Journal of East Asian Society Dietary Life* 15(4): 475-482.
- Kim YJ *et al.* (2011). A study on consumer attitude to a coffee shop using the fishbein attitude model -Focused on college students in Busan-. *Korean J of Culinary Research* 17(5): 30-41.
- Ko MS, Seo IK (2011). Influences of the elderly's health status upon their stress and depress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7(1): 1-14.
- Kwon YS (2009). A trend analysis regarding the consumption, energy and micro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the eating out frequency of the adults -Using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ent Examination Survey(1998~2007)-. Department of Food-service Management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ersity 28-29, Seoul.
- Lee JH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coffee shop service quality on perceived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Focusing on Busan area college students-. *Korean J of Culinary Research* 19(3): 218-233.
- Lee JS *et al.* (2011). Dietary factors related to hypertension risk in Korean adults-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II.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5(1): 60-65.

- Lee KH *et al.* (2007). Nutritional status of the elderly living in a private silver town of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36(10): 1293-1299.
- Lim YH, Kim SH (2012). Survey on consumption of coffee beverages and energy contribution ratios of coffee beverages and accompanying snacks by college students in Daejeon city and Chungnam provi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27(3): 240-250.
- Lim YS *et al.* (2000). A comparative study of nutrient intakes and factors to influence on nutrient intake between low-income elderly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29(2): 257-267.
- Park SH *et al.* (2011). The effects of a silver generation's lifestyle on restaurant selection attributes.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26(3): 149-170.
- Park YG, Kim PJ (2002). Purchase behavior of elderly consumer and strategy of silver marketing. *Journal of Industrial Management* 19: 121-133.
- Shin JW (2012). Effect of substitutability management on consumers' behavioral intention at coffee houses and Korean status of coffee intake. Department of Foo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55-56, Seoul.
- Shin SY, Chung LN (2007). The preference and frequency of beverages related to health facto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22(4): 420-433.
- Sohn KH *et al.* (200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sumption of coffee and tea among female in Seoul. *Korean Journal of Dietary Culture* 15(5): 398-412.
- Statistics Korea (2013). Estimated future population 2010-2060.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 United Nations (2013).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3) World population ageing 2013. ST/ESA/SER.A/348. <http://www.un.org>
- Yeon JY *et al.* (2009). Evaluation of nutrition intake and bone statu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calorie consumption from coffee containing beverage. *Korean Journal of Food & Nutrition* 22(3): 430-442.
- Wolinsky FD, Arnold CL (1988). A different perspective on health and health services utilization.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 8: 71-101.

---

2014년 05월 01일 접수

2014년 05월 20일 1차 논문수정

2014년 05월 25일 2차 논문수정

2014년 06월 05일 3차 논문수정

2014년 06월 10일 논문게재확정